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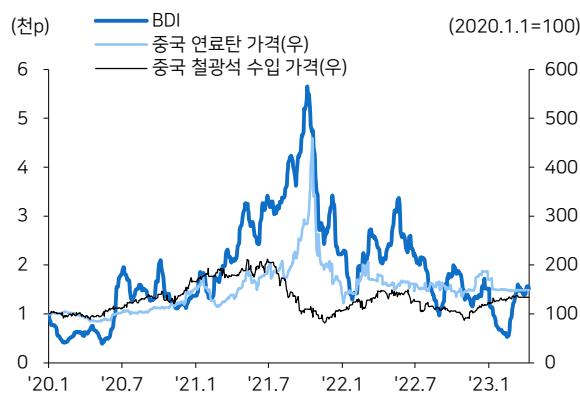
2023. 4. 12 (수)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1,507.0p(-5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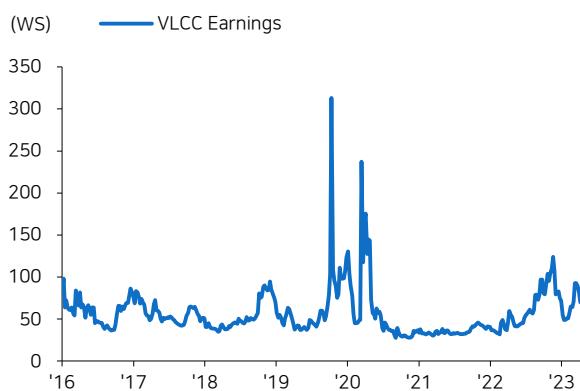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56.9p(+33.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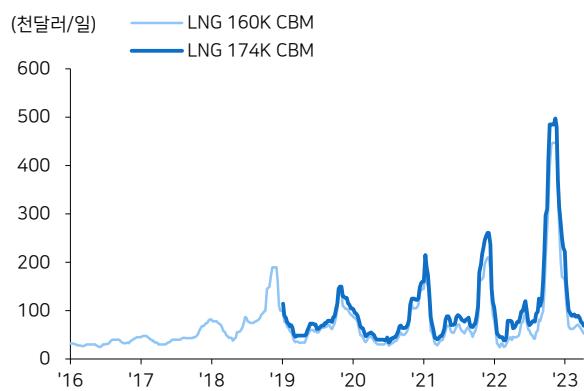


VLCC Spot Rate

69.8p(-11.7p WoW)



LNG Spot 운임

52.5천달러(-6.0천달러 WoW)
68.8천달러(-6.3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5.5p(+0.0p WoW)
153.5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49.0달러(-3.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opak could boost capacity of EET LNG terminal as it buys 50% stake

네덜란드 LNG터미널 운영업체인 Vopak이 Gasunie가 운영하는 Eems Energy Terminal(EET) 지분 50%를 매입하며 증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보도됨. EET는 2022년 9월부터 가동된 연간 80억CBM를 수입하는 터미널로 알려짐. Vopak은 4번째 탱크를 추가해 200억CBM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언급함. 1.09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9월까지 FID를 내릴 계획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bit.ly/3Utv5gz>)

Eni sets start-up date for rapid Africa project after FPSO upgrade completed

Eni의 FPSO 업그레이드 작업이 완료되자 Eni는 Baleine 프로젝트 생산시작일을 정했다고 보도됨. Ivory Coast의 Baleine 프로젝트는 25억배럴 규모 유전 및 3.3조큐빅피트의 가스전으로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임. Phase 1은 오는 6월부터 생산이 시작됨. Phase 2는 2024년 12월 생산이 시작될 계획인데, FID시점으로부터 2년 뒤라고 언급됨. (Upstream) (<https://bit.ly/3UtQkys>)

Tanker strength to lead recovery in shipping stocks, Clarksons Securities says

Clarksons Securities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해운주 주가가 약 2% 하락했는데, 과도한 낙폭으로 보도됨. OPEC+ 감산소식에 탱커 선사 주가는 전월대비 19% 하락했으나, 연초대비 13% 높은 수준으로 언급됨. OPEC+ 감산은 일시적이고, 하반기에 견조한 수요가 나타날 전망으로 언급됨. 탱커 및 벌크선 수주잔고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공급 증가율도 미미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중국 리오프닝으로 탱커, 벌크선, LNG선 시장이 수혜를 볼 예정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bit.ly/3KPnmGl>)

러시아, 올해부터 이란에 철도로 석유 제품 수출

러시아가 2023년부터 이란에 철도를 통해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됨. 러시아와 이란은 모두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으로 최근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고 있다고 알려짐. 2022년 가을, 러시아는 이란과 에너지 상품의 스와프 거래를 시작할 계획으로 밝혔으나, 실제 교역은 올해 시작되었다고 언급됨. 2~3월 러시아는 약 3만톤의 가솔린과 디젤을 이란에 수출했다고 알려짐. 이란은 자체 정유 시설이 있는 산유국이지만, 최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됨. (연합뉴스) (<https://bit.ly/3ZTgNa0>)

뭉치는 브라질·중국... 르라, 방증 하루 앞두고 “시진핑 곧 초청할 것”

르라 브라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을 브라질로 초청할 예정으로 언급했다고 보도됨. 과거 르라 1·2기 정부 시절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행해왔다고 알려짐. 양국 간 교역 규모도 르라 재임 이후 증가해 중국은 최근 수년간 브라질의 최대 수입 및 수출국에 등극함. 르라는 오는 11~14일 방중해 20여건의 협약을 체결할 전망으로 알려짐. (조선Biz) (<https://bit.ly/43lk7V>)

Capesize spot market recedes as Chinese steel prices fall and cyclone approaches Australia

서호주에 싸이클론이 예상되며 부활절 휴일 전부터 Capesize 벌크선 시장 Spot 운임이 하락했다고 보도됨. Capesize 5TC 운임은 목요일(6일)부터 화요일(11일)간 6.4% 하락하며 3월말 상승세가 그쳤다고 알려짐. 철강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언급됨. 오는 목~금요일(13~14일) 싸이클론이 상륙하며 운임에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됨. 최대 철광석 수출항인 Port Hedland는 13일부터 항구에 선박을 비울 예정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bit.ly/3o4gNGS>)